

【어원 탐구】

地名 語源 몇 가지(1)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전국에는 수많은 지명이 존재한다. 이들 지명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과 함께, 이들 지명의 語源과 由來를 정확히 밝히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지명은 우리 先祖가 남긴 소중한 無形 文化財인 동시에 우리 고유어의 寶庫이자 기본 資產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완비된 지명 자료집 하나 없고, 또 믿을 만한 지명 어원 사전 하나 없는 초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누구의 탓만 하거나,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구호만 공허하게 외칠 형편이 못 된다. 이제 개인이든 집단이든 실제적인 지명 채집 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또 채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부단히 그 어원과 유래를 밝히는 작업에 임해야 한다. 지금 시작한다 해도 결코 이른 것은 아니다. 그 결과물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전국에 산재하는 俗地名을 대상으로, 개별 지명 하나하나에 대한 어원과 유래를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궁극적으로야 속지명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속지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 어원과 유래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 원형을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태가 심하게 변형된 지명이 많을뿐더러, 이미 死語가 되어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고유어를 포함하고 있는 지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빈도가 높은 지명 가운데, 어원 해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별히 어원 해석의 방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명 몇 개를 선택하기로 한다. ‘꽃산, 고잔, 질구지, 진살미, 팔발골, 방아다리’가 그 대상 지명이다.

2

2.1. 꽃산

‘꽃산’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산 이름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에 꽃이나 꽃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꽃’을 단순히 ‘花’의 뜻으로 이해하고 내린 설명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예 ‘꽃’을 ‘花’로 바꾸어 ‘花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

그런데 ‘꽃산’의 ‘꽃’은 ‘花’의 그것이 아니라 ‘곶[串]’의 변형에 불과하다. ‘꽃고개, 꽃골, 꽃등, 꽃말, 꽃뫼, 꽃바우, 꽃봉, 꽃재’ 등의 지명에 보이는 ‘꽃’도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꽃산’은 ‘곶산’의 변형이 된다. ‘곶’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육지의 한 부분’이지만 지명에서는 ‘평야를 향해 내리 뻗은 산줄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곶산, 곶재, 고잔(곶+안)’ 등에 보이는 ‘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곶산’은 ‘곶’ 즉 ‘길게 내리 뻗은 산줄기’로 이루어진 산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지명의 선행 요소로서의 ‘곶’이 그 기본적 의미인 ‘길게 내리 뻗은 산줄기’만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곶’의 일반적 특성인 ‘긴 형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곶바우(곶처럼 길게 생긴 바위)’, ‘곶배미(곶처럼 길게 생긴 논)’ 등에 보이는 ‘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곶’을 선행 요소로 하는 지명은 우연히 ‘꽃’으로 발음 나게 된다. ‘곶산’

이 ‘꽃산’으로 바뀐 것도 ‘꽃’을 포함하는 지명의 형태 변개 과정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 ‘꽃산’이 ‘꽃산’으로 발음 나자 ‘꽃’이 ‘꽃’의 변화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音相이 같은 ‘花’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 어형을 ‘꽃산’으로 바꾼 뒤 ‘꽃이 많은 산’으로 해석한 것이며, 더 나아가 ‘花山’이라는 한자 지명까지 만들어 쓴 것이다.

그런데 ‘꽃산’은 ‘꽃산’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다. ‘고지산’이나 ‘고자산’으로도 변한다. ‘고지산’은 ‘꽃산’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고직산’의 변형이다. ‘꽃내’에 대한 ‘고지내’, ‘꽃미’에 대한 ‘고지미’, ‘꽃바우’에 대한 ‘고지바우’, ‘꽃배미’에 대한 ‘고지배미’ 등에 보이는 ‘고지’도 기원적으로는 ‘꽃’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어형이다. 지명 형태의 확대 방법으로 속격 ‘-의’의 개재는 아주 일반적이다. ‘달말랑’에 대한 ‘달의말랑’, ‘문산’에 대한 ‘문의산’, ‘산골’에 대한 ‘산의골’, ‘산실’에 대한 ‘산의실’ 등의 존재가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고자산’은 ‘꽃산’에 屬格으로 추정되는 ‘-아’가 개재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꽃골’에 대한 ‘고자골’, ‘꽃목’에 대한 ‘고자목’, ‘꽃바우’에 대한 ‘고자바우’ 등에 보이는 ‘고자’도 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파악된다. 지명 확대의 한 방법으로 屬格의 ‘-의’ 개재와 함께 ‘-아’ 개재 방식도 아주 일반적이다. ‘독골’에 대한 ‘도가골’, ‘감골’에 대한 ‘가마골’, ‘곰재’에 대한 ‘고마재’, ‘범골’에 대한 ‘버마골’, ‘쌀들’에 대한 ‘싸라들’, ‘안골’에 대한 ‘아나골’ 등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려준다.

‘꽃산’과 같은 의미의 지명으로 ‘꽃산, 고지산, 고자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꽃매, 꽃피, 꽃미, 꽃매, 꽃피, 꽃미, 고지매, 고지매, 고지미, 꼬치산’ 등도 존재한다.

‘꽃피’는 ‘꽃’과 ‘피[山]’가 결합된 어형이다. 그리고 ‘꽃매, 꽃미’ 등은 ‘꽃피’의 異形態 지명이다. 이들 고유어 ‘피’를 포함하는 지명이 존재했기에, ‘꽃산’은 이 ‘피’를 한자 ‘山’으로 바꾼 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꽃산’은 이미 세력을 잡은 한자어 ‘山’을 중심어로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지명일 수도 있다. ‘꽃매, 꽃피, 꽃미’가 변하여 한편으로는 ‘꽃매, 꽃피, 꽃미’가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지매, 고지매, 고지미’가 된다. ‘꼬치산’은 ‘꽃산’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꼬촛산’이 ‘니>ㅣ’ 변화에 따라 나타난 어형이다.

2.2. 고잔

‘고잔’은 아주 흔한 마을 이름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곶으로 된 마을’ 또는 ‘곶 안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하고 있다. ‘고잔’ 마을이 ‘곶(串)’에 자리하고 있고, 더 정확히는 그 ‘곶’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래 설은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고잔’이라는 지명이 ‘곶[串]’과 ‘안[內]’으로 분석되므로 ‘고잔’ 마을이 ‘곶의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유래 설은 믿을 만하다. ‘곶’ 안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곶’이나 ‘말’ 등을 생략한 채 ‘고잔’으로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고잔곶’이나 ‘고잔말’이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고잔’은 변형되어 ‘꽃잔, 꽃안, 고장, 꼬잔, 꼬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꽃잔’은 ‘고잔’이 ‘꼬잔’으로 발음 나기도 하자 ‘花’의 ‘꽃’에 유추되어 나타난 어형이다. 그리고 ‘꽃안’은 ‘꽃잔’을 ‘꽃’과 ‘안’의 결합체로 분석한 결과의 어형이다. ‘꽃안’에는 ‘花內’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그리고 ‘고장’은 ‘고잔곶’의 자음 동화 형태 ‘고장곶’에서 ‘고장’만 취한 것이다. ‘고장’은 ‘고장논, 고장동, 고장말, 고장배기, 고장산, 고장재’ 등에서 보듯 ‘고잔’과 같은 자격의 선행 요소로 굳어진다.

지명의 선행 요소 ‘고장’은 ‘고잔’과의 有緣性이 상실되어 ‘옛 무덤’이나 ‘高麗葬’ 등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물론 ‘고장’은 ‘고잔’과 같이 ‘곶의 안쪽’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장논’은 ‘곶의 안쪽에 있는 논’, ‘고장말’은 ‘곶의 안쪽에 있는 마을’로 해석된다.

‘고장’은 ‘꼬장’으로 변하면서 ‘고잔’과의 거리가 더 멀어진다. ‘꼬장바우, 꼬장배기, 꼬장산’ 등에서 ‘곶안’을 생각해 내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꼬장’을 ‘꽃’과 연계하여 이해한다. 가령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를 ‘꼬장배기’라고 하는데, 뒷산에 바위가 꽃처럼 아름답게 서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고 ‘花庄’이라는 한자 지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이 아주 길게 뻗은 곳의 안쪽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꼬장’을 ‘꽃[花]’이 아니라 ‘꽃[串]’과 연계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잔’이 지명의 선행 요소로 쓰일 경우에는 ‘고잘’로 변하기도 한다. ‘고잘미, 고잘봉’에 보이는 ‘고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들은 각기 ‘고잔미, 고잔봉’에서 변한 것이므로 ‘꽃 안쪽에 있는 산’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고잔미>고잘미’, ‘고잔봉>고잘봉’의 변화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동산미’가 ‘동살미’로 변하고, ‘진산미’가 ‘진살미’로 변하는 예가 있어서 주로 ‘ㅁ’ 앞에서 ‘ㄴ’이 ‘ㄹ’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오리산’이 ‘오리살’로 변하기도 하여 그 변화 환경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

2.3. 질구지

‘질구지’는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지명이다. 마을, 들, 골짜기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마을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 이 ‘질구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유래 설이 전한다. ‘질’을 ‘질그릇을 만드는 흙’으로 보아 웅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질’을 ‘질다(땅이 질척질척하다)’의 어간으로 보아 진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질’을 ‘길다’와 관련시켜 길게 뻗은 곳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에서는 세 번째 유래 설이 그럴듯하다. ‘질구지’의 ‘질’은 ‘길다[長]’의 어간 ‘길-’이 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길-’은 ‘길골, 길동, 길등, 길목, 길배미, 길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 지명은 지역에 따라 口蓋音化하여 ‘질골, 질등, 질배미, 질재’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질구지’의 ‘구지’는 ‘고지’로 소급하며, ‘고지’는 ‘꽃[串]’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이렇게 보면 ‘질구지’는 ‘질꽃’이 ‘질고지’를 거쳐 나타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질’이 ‘길-[長]’의 구개음화 어형이므로 ‘질꽃’은 다시 ‘길꽃’으로 소급한다. 따라서 ‘길꽃>질꽃>질고지>질구지’의 변화 과정이 상정된다. 물론 ‘길꽃’이 먼저 ‘길고지’로 변하고 이어서 ‘질고지’로 변한 뒤에 ‘질구지’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길꽃>길고지>질고지>질구지’의 과정을 그려볼 수도 있다.

‘길꽃’의 ‘꽃’은 ‘꽃산’의 ‘꽃’과 같이 ‘길게 내리 뺀 산줄기’의 뜻이다. ‘꽃’ 자체가 길게 뺀 땅이므로 ‘길-[長]’은 ‘꽃’이 길게 뺀어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길꽃’은 ‘아주 길게 뺀 산줄기’로 해석된다. 아울러 ‘길꽃’에서 출발하는 ‘질구지’ 또한 그러한 의미를 띤다. 이 산줄기를 따라 조성된 마을이나 들 등을 ‘꽃’ 이름을 빌려 그렇게 부른다.

이 ‘질구지’와 어형이 유사한 지명에 ‘진구지’가 있다. ‘진구지’ 또한 ‘길-[長]’을 이용한 지명이지만 ‘질구지’와는 조어 방식이 다르다. ‘진구지’의 ‘진’은 ‘길-[長]’의 관형사형 ‘긴’의 구개음화 형태이기 때문이다. ‘긴’은 ‘긴골, 긴내, 긴논, 긴등, 긴배미, 긴사래, 긴여울, 긴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왕성하게 쓰인다. 지명 생성에서 ‘긴’은 ‘길-’보다 그 쓰임의 범위가 넓다.

‘진구지’의 ‘구지’는 ‘질구지’의 ‘구지’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진구지’는 ‘진꽃’으로 소급한다. 물론 ‘진꽃’은 ‘긴꽃’으로 소급한다. 이 ‘긴꽃’은 ‘길꽃’과 마찬가지로 ‘평야를 향해 아주 길게 뺀 산줄기’로 해석된다. 이 ‘진꽃’이 ‘진꽃’으로 먼저 변한 뒤에 ‘진고지, 진구지’로 변할 수도 있고, ‘긴꽃’이 ‘긴고지’로 먼저 변한 뒤에 ‘진고지, 진구지’로 변할 수도 있다. 어떤 방향으로 변했든 ‘진구지’는 ‘긴꽃’과 같은 의미를 띤다.

이 ‘진구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길게 생긴 꽃’으로 설명하여 그 유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 ‘질구지’의 경우와는 달리 ‘진’의 어원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장꽃(長-, 장고(長-, 장관(長串)’ 등의 한자 지명을 함께 쓰고 있는 것도 ‘진구지’의 유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4. 진살미

‘진살미’는 들 이름으로 널리 쓰이는 지명이다. 물론 논, 산, 마을 등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에 대한 특별한 유래 설이 전하지는 않지만,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시 대상이 ‘긴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長山’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도 증거가 되거니와 실제 산줄기가 길게 뻗어 있거나 논이나 들이 산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살미’는 ‘진살’과 ‘미’로 분석된다. 지시 대상이 ‘긴 형상을 하고 있다’는 진술을 존중하면, ‘진살’의 ‘진’은 다름 아닌 ‘긴[長]’의 구개음화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진살미’가 ‘긴살미’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 ‘진’이 ‘긴’의 변형이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진살’의 후행 요소 ‘살’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그 어원을 풀 수 없을 정도로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 ‘진살’이라는 지명이 여럿 보이는데 들, 골짜기, 마을 등의 이름으로 쓰인다. ‘진살’의 ‘살’은 ‘산(山)’의 변형이다. 이에 따라 ‘진살’은 ‘진산’으로 소급한다. ‘진산’이 ‘진살’과 함께 쓰이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을 보면 ‘진살’과 ‘진산’의 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오리산’이 ‘오리살’로 나타나고, ‘동산미’가 ‘동살미’로 나타나는 예에서 보듯 ‘산’이 ‘살’로 실현되는 예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아도 ‘진살’의 ‘살’이 ‘산(山)’의 변형임을 잘 알 수 있다.

‘ㄴ>ㄹ’의 변화는 ‘산>살’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고잔미’가 ‘고잘미’로, ‘고잔봉’이 ‘고잘봉’으로 나타나는 예에서 보듯, 여타 지명에서도 실현되는 음운 변화이다. 대체로 모음과 脣子音 사이에서 실현되는 양상이지만 ‘진산’이 ‘진살’로, ‘오리산’이 ‘오리살’로 나타나는 예를 보면 특정한 환경에서만 실현되는 음운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진산’은, ‘진’이 ‘긴’의 구개음화 어형이므로 ‘길게 이어진 산’의 뜻이다. 아울러 ‘진산’에서 변형된 ‘진살’ 또한 그러한 의미를 띤다.

‘진살미’의 ‘미’는 ‘山’의 뜻이다. 그렇다면 ‘진살미’는 ‘山’을 뜻하는 두

단어가 중복된 어형이 된다. ‘진살미, 진산미’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면 ‘미’가 ‘진살’뿐만 아니라 ‘진살’이나 ‘진산’에도 첨가되고 있음을 보인다. 물론 ‘진산골, 진산논, 진산등, 진산보, 진산재’, 그리고 ‘진살들, 진살매, 진살못’ 등에서 보듯 ‘진산’과 ‘진살’에 다른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지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진산’과 ‘진살’에 ‘미’라는 요소가 결합된 것은 큰 주목거리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산’, ‘살’과 동일한 의미의 요소가 첨가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진살, 진산, 진살’만으로도 ‘山’을 지시하는 명칭으로 손색이 없는데, ‘山’과 의미가 같은 고유어 ‘미’를 굳이 덧붙인 이유는 딱히 무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혹시 ‘미’가 ‘山’ 아닌 다른 지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이용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미’가 ‘山’ 이외의 다른 의미를 지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런 추정은 무리이다. 또한 ‘산’이 ‘살’로 변하자 그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고유어를 첨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진산’에도 ‘미’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크게 내세울 이유는 못 된다.

분명한 것은 ‘진살미’가 동의 중복형 지명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의미도 ‘진살’과 같은 ‘긴 형상의 산’이다. ‘진살미’와 유사한 지명인 ‘진살미, 진산미’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진살미’가 산 이름으로도 쓰이지만, 주로 들 이름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들 이름으로서의 ‘진살미’는 산 이름으로서의 ‘진살미’를 빌려 쓴 것이다. 길게 뻗은 산의 밑에 형성된 들을 산 이름을 빌려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5. 팔발골

‘팔발골’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골짜기 이름이다. 이는 ‘팔밭’과 ‘골’로 나뉜다. ‘팔밭’은 밭 이름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팔밭’을 ‘火田’으로 이해하고, ‘팔발골’을 ‘화전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한다. ‘팔밭’이 ‘火

田'과 대응된다는 점에서, '팔밭'은 "폴완 버후매 당당이 나물 虛費허리로소니(斫畚應費日)"<杜詩諺解 7 : 17>에 나오는 '폴완'을 상기시킨다.

이기문(1991 : 96)에서는 '폴완'의 '완'을 '밭[田]'의 변화형으로 이해하고, 그 앞에 놓이는 '폴'을 '폴완'과 보통 밭을 구별하는 변별 요소로 간주한 뒤 '거친 산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에는 '뫓뚝(뚝부기)'<譯語類解 下:28>, '뫓뚝(괘배)'<物譜 木果> 등에 쓰인 '뫓'이 '폴'에 속격의 '-ㅅ'이 들어간 '뫓'의 변화형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분명한 점은 중세국어의 '폴완'과 지명 '팔밭골'의 '팔밭'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뫓뚝'이나 '뫓뚝'에 보이는 '뫓'이 '뫓'의 변화형인지, 그리고 '폴완'이나 '팔밭'의 '폴>팔'이 '거친 산야'라는 뜻의 명사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뫓뚝'이나 '뫓뚝'의 '뫓'이 '뫓(>괘)'일 가능성도 있고, '폴완'이나 '팔밭'의 '폴>팔'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팔'이 동사라면 이는 '불을 질러 개간하다' 정도의 의미를 띠지 않나 한다. 그 가능성은 <杜詩諺解 7 : 17>의 '폴완'에 대응된 한자 '畚'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畚'는 '잡초를 불살라 일군 밭'의 뜻이기 때문이다.

지명에서 '팔'은 '팔밭'뿐만 아니라 '팔들, 팔등' 등에서도 확인된다. 만약 '팔'을 '거친 산야'의 뜻으로 본다면 '팔밭'은 '거친 산야에 있는 밭', '팔들'은 '거친 산야에 있는 들', '팔등'은 '거친 산야에 있는 등성'으로 해석된다. 한편 '팔'을 '불을 질러 개간하다'의 뜻으로 본다면 '팔밭, 팔들, 팔등'은 차례로 '불을 질러 개간한 밭', '불을 질러 개간한 들', '불을 질러 개간한 등성'으로 해석된다.

이 '팔밭'이 있는 골짜기가 바로 '팔밭골'이다. 그런데 '팔밭골'은 지역에 따라서 '팔박골'로 나타나기도 한다. '팔박골'은 '팔밭골'의 자음 동화 형태이고, '팔밭골'은 '팔밭골'의 제2음절 받침을 대표음으로 표기한 어형이다. 따라서 '팔밭골'이나 '팔박골'도 '팔밭골'과 같이 '팔밭' 즉 '거친 산야에 있는 밭' 또는 '불을 질러 개간한 밭'이 있는 골짜기로 해석된다.

2.6. 방아다리

‘방아다리’는 전국에 널리 분포하는 지명이다. 주로 ‘들’을 지시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논’, ‘골짜기’, ‘다리’ 등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 ‘방아다리’에는 지형이 방아의 다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 특정 장소에 물레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등과 같은 유래 설이 결부되어 있다. 이 중에서는 전자의 유래 설이 훨씬 우세하다. 이는 ‘방아다리’를 ‘방아’와 ‘다리’로 분석한 다음 ‘방아’를 ‘곡식을 찧거나 뿜는 기구’로, ‘다리’를 ‘그 방아에 부속된 한 부분’으로 바라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래 설은 믿기 어렵다.

‘방아’는 ‘방아다리’를 비롯하여 ‘방아고개, 방아골, 방아논, 방아미, 방아봉, 방아샘, 방아실, 방아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아주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들 지명에서도 ‘방아’를 ‘곡식을 찧거나 뿜는 기구’로 이해하여 地形·地物이 방아 형국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아’는 구체적으로 ‘디딜방아’를 가리킨다. ‘디딜방아’는 굵은 나무 한 끝에 공이를 박고 다른 한 끝에는 두 갈래의 발판을 단 구조이다. 공이를 빼고 보면 Y자 형상이다. 특정의 지형·지물이 디딜방아처럼 Y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 ‘방아’가 지명의 선행 요소로 이용된다. 그러므로 ‘방아논’은 ‘Y자 형상의 논’이 되고, ‘방아실’은 ‘Y자 형상의 골짜기’가 된다.

그런데 ‘방아다리’의 경우는 ‘방아처럼 Y자 모양을 하고 있는 다리’로 해석되지 않는다. 아울러 ‘디딜방아에 딸린 다리’로도 해석되지 않는다. ‘방아다리’의 ‘다리’를 ‘橋’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방아’처럼 Y자 형상을 하고 있는 다리가 흔치 않으며, 또 ‘방아다리’라는 지명이 다른 어형의 변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리’가 ‘방아’의 부속물로 파악되지 않는 이유는 ‘방아의 다리’라는 의미의 ‘방아다리’라는 지명은 아주 이상하기 때문이다. ‘방아’를 포함하는 여타 지명에서 보듯 ‘방아’ 뒤에는 ‘방아’의 부속물을 지시하는 단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형·지물을 가리키는 단

어가 뒤따른다.

‘방아다리’의 ‘다리’는 ‘들[野]’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방아다리’는 ‘방아들’로 소급한다. 전국에 ‘방아들’이라는 들 이름이 아주 많으므로 그 가능성은 높다. 이 ‘방아들’은 특이하게도 지역에 따라서는 ‘방아달, 방아드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방아달’은 ‘방아들’의 제2음절 모음 ‘ㅏ’에 이끌려 제3음절 모음 ‘-’가 ‘ㅏ’로 변한 어형이고, ‘방아드리’는 ‘방아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달안이(들안), 마드리, 배드리’ 등에서 보듯 ‘들’은 ‘달’ 또는 ‘드리’로도 나타난다. 물론 ‘들’의 15세기 어형이 ‘드르ㅎ’라는 점에서 ‘방아드리’의 ‘드리’를 ‘드르ㅎ’의 잔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드리’는 ‘들’의 변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지명의 후행 요소에 접미사 ‘-이’를 결합하여 어형을 바꾸는 것이 지명 확대의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방아다리’는 ‘방아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거나, ‘방아들’에서 변한 ‘방아드리’에서 모음이 변한 어형이다. 즉 다음의 두 방향으로 어형이 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방아들>방아달>방아다리
- ② 방아들>방아드리>방아다리

‘들’과 관련된 ‘다리’는 ‘배다리’, ‘삼다리’, ‘쪽다리’ 등에서도 확인된다. ‘배다리’에 대해 ‘배들/배달/배드리’, ‘삼다리’에 대해 ‘삼들/삼드리’, ‘쪽다리’에 대해 ‘쪽드리’가 대응되어 있어, 이들 지명 또한 ‘들’과 관련된 어형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방아다리’의 ‘다리’가 ‘들’의 변형이므로, ‘방아다리’는 ‘방아처럼 Y자 형상을 하고 있는 들’로 해석된다. ‘방아다리’로 명명된 지역을 가보면 예외 없이 들 모양이 디딜방아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들판에 있는 ‘논’이나 ‘다리’, 그리고 이 들이 있는 ‘골짜기’ 등을 ‘들’ 이름을 빌려 그렇게 부른다. ‘방아다리’를 ‘다리’ 이름으로 이해하는 지역을 가보면, 실제 방아 모양을 한 다리는 보이지 않고 불품없는 작은 다리가 덩

그러니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방아다리’가 본래 다리의 이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저 음이 같은 ‘橋’의 ‘다리’를 연상하여 들 이름을 다리 이름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다.

물론 ‘방아다리’라는 들에 있는 다른 지형·지물을 ‘방아다리’를 선행 요소로 하여 다시 명명하기도 한다. ‘방아다리고개, 방아다리골, 방아다리내, 방아다리들, 방아다리방죽, 방아다리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방아다리들’은 조어론적으로 아주 특이한 지명이다. ‘방아다리들’은 ‘野’의 의미를 지니는 두 단어가 중복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방아다리’만으로도 ‘野’를 지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들’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은 ‘다리’의 지시 의미가 모호해지면서 그 의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한다. 물론 ‘들’ 아닌 다른 지형·지물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바뀐 ‘방아다리’에 그곳에 조성된 들을 지시하기 위해 후행 요소 ‘들’을 덧붙였을 가능성도 있다.

3

지금까지 지명 몇 개를 대상으로, 그 어원을 지명 생성의 원리와 그 변화 과정에 주목하여 밝혀 보았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꽃산’은 ‘꽃산’의 변형이다. ‘꽃산’이 ‘꽃으로 이루어진 산’의 뜻이므로 ‘꽃산’ 또한 그러한 의미를 띤다. ‘꽃산’은 ‘꽃피’의 ‘피’를 한자 ‘山’으로 바꾼 어형이거나 한자어 ‘山’이 중심이 되어 새로 만들어진 지명일 수 있다.
- (2) ‘고잔’은 ‘꽃[串]과 ‘안[內]’이 결합된 어형이다. 그러므로 ‘꽃의 안쪽’이라는 뜻이다. 꽃의 안쪽에 있는 마을을 후행 요소 ‘골’이나 ‘밭’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이다.

- (3) ‘질구지’는 ‘길곶’으로 소급한다. ‘길곶’이 ‘질곶>질고지’로 변화거나 ‘길고지>질고지’로 변한 뒤에 나타난 어형이다. ‘길곶’은 ‘아주 길게 뻗은 산줄기’의 뜻이므로 ‘질구지’ 또한 그러한 의미를 띤다.
- (4) ‘진살미’는 ‘진살’과 ‘미’로 분석된다. ‘진’은 ‘길-[長]’의 관형사형 ‘긴’의 구개음화 어형이고 ‘살’은 ‘산(山)’의 변형이다. 그러므로 ‘진살’은 ‘길게 뻗은 산’의 뜻이다. 이 ‘진살’에 ‘살’과 의미가 같은 ‘미[山]’가 결합된 어형이 ‘진살미’이다.
- (5) ‘팔밭골’은 ‘팔밭’과 ‘골’로 분석된다. ‘팔’은 ‘거친 산야’ 또는 ‘불을 질러 개간하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의미로 보든 ‘팔밭’은 ‘火田’의 의미를 띤다. 이 ‘火田’이 있는 골짜기가 ‘팔밭골’이다.
- (6) ‘방아다리’는 ‘방아달’ 또는 ‘방아드리’에서 변한 어형이다. ‘방아달’은 ‘방아들’에서 제2음절의 모음 ‘ㅏ’에 이끌려 제3음절의 모음 ‘ㅓ’가 ‘ㅏ’로 변한 어형이고, ‘방아드리’는 ‘방아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이다. ‘방아들’이 ‘방아처럼 Y자 형상을 하고 있는 들’의 뜻이므로 ‘방아다리’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참 고 문 헌

도수희(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조항범(2001), ‘地名 語源 辭典’ 편찬을 위한 예비적 고찰, 지명학6.

한글학회(1966~1986), 한국 지명 총람.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큰사전(상)(중)(하).